

광주 찾은 세계적 기업 '칼 자이스' AI 산업 협력 논의

AI 융합 광학 기업 175년 역사...市, 국제 협력 네트워킹 행사 광기술원·과기원 장비 참관...AI 산업 생태계 구축·공동 연구 기대

독일, 미국, 캐나다 등 세계적인 인공지능(AI) 기업과 연구소들이 '국가 AI 혁신 거점 도시' 광주를 주목하고 있다.

11일 광주시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에 따르면 지난 10일 광주과학기술원(GIST) 회의실에서 매튜 M 윌슨(Matthew M. Wilson) 칼 자이스 코리아 부사장과 요한 반드롬메(Johann Bandromme) 김앤장 법무법인 고문·주한유럽상공회의소 이사, 이요셉 리 그룹(Rhee Group) 한국 법인 경영컨설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AI 기술 협력을 위한 '칼 자이스-AI사업단 국제 협력 네트워킹'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칼 자이스에서 AI 융합 광학 분야 협업 체계 구축 등을 위한 광주 방문을 요청해 이뤄졌다.

175년 역사를 지닌 세계적인 인공지능(AI) 융합 광학 기업인 '칼 자이스' 사 임직원들은 이날 광주 AI 데이터센터 등을 둘러보고, AI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칼 자이스가 AI 융합 광학 분야 협업 체계 구축을 이유로 광주 방문 요청해 진행됐으며, 칼 자이스는 광주 AI 산업 생태계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는 광주시의 설명이다.

특히 한국광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 고등광기술연구소 시설과 장비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AI 융합 광학 분야 협력 방안 등을 모색하기도 했다.

이번 행사 이후 매튜 M 윌슨 부사장은 오는 11월 1일부터 사흘간 광주과학기술원 오토크관에서 열

리는 글로벌 AI 컨퍼런스(AICON 2023) 기조강연 연사로 나서기로 하는 등 'AI 대표도시' 광주와의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칼 자이스는 독일에 있는 175년 역사의 AI 융합 광학 분야 전문 회사로, 생명 과학과 소재 연구를 위한 현미경 솔루션, 안과와 미세 수술을 위한 의료 기술 솔루션을 개발·제작·유통하고 있다. 칼 자이스는 특히 AI 기술을 활용해 현미경 분석부터 부가 제조의 품질 보증에 이르기까지 큰 데이터 세트를 평가하고, 반도체 제조산업에서 마이크로칩 생산을 하고 있다.

광주시와 AI사업단은 이번 독일 칼 자이스와의 국제 협력 관계 형성을 통해 글로벌 AI 산업 생태계 구축 및 국내 AI 기업·인재의 글로벌 진출과 공동 연구를 위한 발판 마련 등을 기대하고 있다.

앞서 광주시와 AI사업단은 지난 8월에도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와 AI융합 산업 비즈니스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지난달에는 세계 최대 답리닝 분야 연구기관으로 꼽히는 캐나다 몬트리올 알고리즘 리서치연구소 '밀라'(MILA) 임직원들이 광주를 방문해 AI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산업 대표 도시이기도 한 광주는 세계가 주목하는 인공지능 융합 도시로도 거듭나고 있으며, 이번 세계적인 AI 융합 광학 회사인 칼 자이스와의 협력 체계 구축으로 많은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지난 10일 광주과학기술원(GIST) 회의실에서 열린 '칼 자이스-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국제 협력 네트워킹'에 참석한 매튜 M 윌슨 자이스 코리아 부사장과 요한 반드롬메 김앤장 법무법인 고문·주한유럽상공회의소 이사 등이 광주시의 AI산업 인프라 구축 계획 등을 청취하고 있다.

광주시, 전남대 글로벌대학에 1000억 지원

글로벌대학30 설명회...학교 주변 인프라 등 5년간 1조4000억 투입

광주시가 전남대 글로벌대학30 성공을 위해 5년간 1000억원에 달하는 현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현금 지원 외에도 기반시설(인프라)·인재양성 등에 1조 4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지원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11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이 같은 지원 내용을 담은 '두드림(Do dream) 광주시-전남대 글로벌대학30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강기정 시장, 정성택 전남대 총장, 김영집 광주테크노파크 원장을 비롯해 전남대와 글로벌대학30 산업혁신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기업체(주에스오에스랩 정지성 대표, ㈜원성오토텍 신재봉 대표, ㈜인셀 정창권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에선 전남대 글로벌대학30 분지정 실행계획 및 혁신 전략을 비롯한 오는 20일 실시 예정인 대면평가 대응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광주시는 전남대학교 글로벌대학30 선정 및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5년간 현금 1000억원을 지원하고, 전남대 주변 혁신 기반시설(인프라), 인력양성, 기업 지원 등에 1조4000여억원 규모의 지원을 병행하기로 했다.

글로벌 대학 30은 과감한 혁신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이끌 지방대를 뽑아 학교당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예비 지정 15개 대학을 대상으로 대면 평가 후 10개 대학이 선정될 예정이다. 광주시와 전남대는 세계적 수준의 융복합 인재 양성 등 25개 세부 과제를 담은 분지정 실행계획서를 작성해 지난 6일 교육부에 제출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광주 수도요금 57억 이중수납 '대혼란'

전산 오류로 4만여건 4일·10일 두차례 출금...오늘까지 환불

지난 2월 시설 관리 소홀 등으로 대규모 수도물 공급 중단 사고를 냈던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이번에는 4만여건이 넘는 수도 요금 이중수납 사고를 내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

11일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광주 다수 수용가 은행 계좌에서 8월 사용분(9월 말 납기분) 수도 요금이 두차례에 걸쳐 빠져나갔다. 지난 4일 출금된 수용가는 수납 완료 대상인데도 10일에 요금이 다시 한번 빠져나갔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전산 시스템의 오류로 수납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월말 또는 20일 납기 중 월말 납기를 선택하고 자동이체를 신청한 수용가에서 이중 수납이 발생

했다.

수용가는 수도물을 공급받는 단위로, 아파트는 1개 수용가로 분류된다. 금융결제원을 통해 확인한 결과 4만 1487건, 57억 1200만원이 이중 수납된 것으로 확인됐다.

상수도사업본부는 광주은행에 대상을 통보해 환불 조치하고 있으며, 늦어도 12일 오전까지 환불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이번 일로 불편을 겪은 시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업무 매뉴얼과 시스템을 정비해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밀가루 대신 '가루쌀'

전남도, 내년 생산단지 45곳 전국 최다...사업비 52억 확보

전남도가 밀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루쌀(분질미) 생산단지를 확대하고 있다. 가루쌀은 기존 쌀과 달리 물에 불리지 않고 밀처럼 바로 쌀이 가루로 만들 수 있는 쌀이다. 밀가루 대체에 적합하고 늦이앙(6월 말)이 가능해 이모작에 유리하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의 2024년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사업 공모에서 전국 106개소 가운데 45개소가 선정돼 5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교육·컨설팅 지원 대상이 45개소, 교육·컨설팅과 시설·장비까지 함께 지원받는 곳이 9개소다.

2024년 가루쌀 재배 면적은 3372ha다. 현재 전국 최대로 단지별 가루쌀 생산·관리 매뉴얼에 맞

춰 중자 공급에서 수확까지 체계적으로 생산할 계획이다.

강효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가루쌀은 생산 전량을 정부가 매입하므로 판로가 안정적이고 수입 밀 대체로 식량자급률 향상과 쌀 수급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가루쌀 재배 방법 등에 대한 농업인 재배기술 교육을 통해 안정적 생산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가루쌀 재배를 2024년 1만ha, 2026년까지 4만2000ha로 확대하고 2025년부터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면 전라작물 직불금 가루쌀 지급단가를 ha당 100만원이 인상된 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충선 브리핑

"충장·금남로에 메타버스 상권·마을백화점 조성"

안도걸, 상권 살리기 간담회

안도걸 경제연구소 이사장은 11일 광주시 동구 충장로에서 '충장상권 경제살리기 방안 마련'을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 참석, 충장상권 부활을 위한 여러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도걸 이사장(전 기획재정부 차관)과 유영태 조선대 명예교수, 이연진 조선대 산학협력 교수, 최종일 조선대 경제학과 교수, 여근수 전 상인회 회장, 오방용 한국자영업협회 광주시연합회장, 소상공인 등이 참석해 충장상권 살리기를 위한 지혜를 모았다.

안 이사장은 "충장로·금남로 일대를 글로벌 문화·관광·경제 타운으로 육성해 충분한 유동 인구를 확보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메타버스 상권 및 VR 지도를 구축하는 등 온·오프라인 마을백화점을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또 이날 간담회에서는 '충장로·금남로 지하상가 출입구 현대화', '장기간 공실 건물을 활용한 주차공간 확충', '아카데미극장 골목 영화의 거리 조성'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일보 연중캠페인

1회용품 제로

2023. 11. 24. 부터

1회용품 사용 억제 품목 확대 및 준수사항 강화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small>* 장래식당 내 식품접객업은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함</sma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용억제: 1회용 컵(합성수지·금속박 등),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접시·용기(종이·합성수지·금속박 등), 1회용 비닐식탁보 1회용 종이컵, 1회용 발대·젓가락대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1회용 광고선전물
대규모 점포 <small>(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sma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용억제: 1회용 봉투 및 소핑백 (종이재질은 제외,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을 경우는 제외) 1회용 우산 비닐, 1회용 광고선전물
도소매업 <small>(매장면적 33㎡ 초과 업소)</sma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용억제: 1회용 광고선전물 무상제공금지: 1회용 봉투 및 소핑백 (종합소매업은 사용억제) (종이재질은 제외, 생선·정육·채소 등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을 경우는 제외)
체육시설 <small>(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sma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상제공금지: 1회용 응원용품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 억제)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용억제: 1회용 합성수지용기 (발포포장용기, 생분해합성수지용기 제외)

* 자원재활용법 제41조제2항3조에 따라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